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

김 경 철

세계를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주체조선이 희망의 새해 주체 107(2018)년을 맞이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며 근면하고 보람찬 로동으로, 성실한 탐과 노력으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류레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였다.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결사옹위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주체106(2017)년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자력자강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되였다.

자강력의 전통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켜왔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를 쥐어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다.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국호도 빛을 잃었을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자력갱생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라는것을 똑똑히 심어 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전통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고 전세대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선전선동수단들에서는 자력자강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한 사론설들과 편집물들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전투장들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간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의 돌과구를 열고 생산계획을 수행해나가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켰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일군들과 작가, 배우들도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선전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전투장들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민족사적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주체106(2017)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승리하자면 자기 힘을 키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고 전진하려고 하는것은 자멸의 길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강하면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두번째 해의 행군길에서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제시해주시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의 첫 현지도의 자욱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장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한 평양가방공장에 새기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고 가르쳐주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신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한 만능의 보검이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고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기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인 새형의 80hp트랙도르들과 5t급화물자동차들이 거세찬 동음으로 사회주의조선의 대진군가를 힘차게 울리며 온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떠나갔다.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을 늘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다.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서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이 수행되였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전형단위들이 련이어 태어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주체106(2017)년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다.

교육과 보건 그리고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명강국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다 일신되고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였으며 온 나라를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공연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녀자축구선수들이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가 있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 위력해지는것이 우리의 자강력이다.

오늘 우리는 자강력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활력있게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뒤편이 되는 새해 주체107(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이미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5개년전략, 자력자강